

삼성 '복덩이' 김태군, 올스타 팬투표 깜짝 선두

KBO 1차 집계... 수비형 포수 꼬리표 떼고 타격 '활활' 양현종이 2위... 김광현은 드림올스타 선발투수 선두

올스타 팬 투표 1차 중간 집계 1위는 김광현(SSG 랜더스)도, 양현종(KIA 타이거즈)도 아니었다. 삼성 라이온즈의 안방 마님 김태군이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3일 공개한 2022 신한은행 올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 팬 투표 1차 중간 집계(12일 오후 5시 기준) 결과에 따르면 김태군은 33만4057표를 받아 최다 득표 1위에 올랐다.

2022시즌을 앞두고 NC 다이노스에서 삼성으로 트레이드된 김태군은 꽤 조의 타격감을 자랑하며 '수비형 포수'라는 꼬리표를 떼었다. 김태군은 올해 41경기에서 타율 0.340 12타점 11득점에 OPS(출루율+장타율) 0.806을 기록하며 '복덩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NC 시절이었던 2014년과 2015년 올스타 베스트12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김태군은 개인 통산 3번째 선정에 도전한다.

김태군이 이번 올스타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로 이름을 올리면 삼성은 지난해 포수 강민호에 이어 2년 연속 최다 득표자를 배출하게 된다.

최다 득표 2위는 나눔 올스타 선발 투수 부문 후보인 KIA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

이다. 양현종은 32만8486표를 얻어 김태군을 약 5500표 차로 쫓고 있다.

2021년 미국으로 떠났다가 올 시즌 KBO 리그 복귀한 양현종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개인 통산 4번째 베스트12 선정에 도전한다. 전체 최다 득표 3위는 삼성의 외국인 타자 호세 페렐라로 32만5587표를 얻었다.

드림 올스타 선발 투수 부문에서는 SSG의 좌완 에이스 김광현이 30만3304표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년간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올 시즌 KBO리그에 복귀한 김광현은 11경기에서 6승 1패 평균자책점 1.39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투표 추세가 유지된다면 빅리그 경험자이자 국내 최고 좌완으로 꼽히는 김광현, 양현종이 2014년 광주 올스타전 이후 8년 만에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이대호(롯데 자이언츠)는 마지막 해 베스트12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30만717표를 얻은 이대호는 드림 올스타 지명타자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선두를 질주 중이다. 11만6132표로 2위인 추신수(SSG)와 표차가 상당하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김태군이 타격을 하고 있다.

삼성라이온즈

13일 현재 리그 전체 타율 2위(0.353), 안타 3위(79개), 장타율 6위(0.504)를 달리며 타 5월 팀 승률 1위에 오르며 상승세를 뽐낸 KIA는 나눔 올스타를 붉게 물들였다. 12개 부문에서 11개 부문 1위가 KIA

선수다. 외야수 부문 한 자리만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가 지키고 있다.

만약 현재 각 부문 1위를 달리는 KIA 선수 11명이 모두 올스타 베스트12에 선정된다면 2013년 웨스턴 LG, 2021년 드림 삼성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한 구단 베스트12 최다 배출 타이 기록을 세운다.

드림 올스타 2루수와 3루수 부문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2루수로 포지션 변경해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김지찬(삼성)이 현재 25만2874표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올해 화끈한 타격을 선보이고 있는 안치홍(롯데 20만7071표)이 약 4만5000여표 차로 추격하고 있다.

3루수 부문에서도 삼성 이원석(20만7177표)과 SSG 최정석(16만3997표)의 득표수가 약 4만3000여표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올스타전이 열리는 가운데 팬 투표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늘었다. 1차 중간 집계 총 투표수는 60만1701표로 지난해 1차 집계 54만6163표보다 약 10% 늘었다.

올스타 베스트12 팬 투표는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올해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지 못했던 선수단 투표도 재개된다. 올스타 베스트12는 팬 투표 70%와 선수단 투표 30%의 비율을 합산한 최종 점수로 선정한다.

스카이데일리/뉴스1



김건모(왼쪽)와 장지연. 뉴스1

“김건모, 먼저 이혼 요구 성폭행 의혹 후 별거 시작 최근 장지연과 이혼 합의”

가수 김건모(54)와 피아니스트 장지연(41)이 결혼 3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이혼 결정 전부터 별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김건모가 성폭행 의혹에 휘말리고 얼마 안 지나 장지연과 별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모는 가로세로연구소 폭로 이후 엄청난 실의에 빠졌다고 한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지만 그간 김건모가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추락했기 때문이다”며 “김건모 본인 뿐만 아니라 모친인 이선미 여사의 건강 역시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로 인한 충격도 가중됐다”고 말했다.

또 “김건모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장지연과 별거를 선택했다. 세상에 대한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라며 “이후 장지연은 친정으로 돌아갔고, 둘은 한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졌지만 별거 이후에도 두 사람의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건모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별거를 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이혼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다. 결국 1년 넘는 시간이 흘렀고 두 사람은 이혼 조정까지 가게 됐다. 최근에는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스카이데일리/뉴스1

韓수영, 세계선수권 황선우 등 38명 파견... 역대 최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2021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200m에서 황선우가 1위로 골인한 후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17일~7월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서 열려... 선수단 총 57명 규모 황선우, 자유형 100m·200m 출격... 단체전은 컨디션 따라 결정

한국 수영이 2022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대한수영연맹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니스장에서 제15차 이사회를 열고 세계선수권에 선수 38명을 포함해 총 57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영연맹은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한 수

구와 이번 대회 정식 종목에서 제외된 하이드로비딩을 제외하고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스위밍, 오픈워터스위밍 등 4개 세부 종목에 선수단을 보낸다.

선수단장과 부단장은 각각 이성복, 유영돈 연맹 부회장이 맡는다. 이번 세계선수권은 17일부터 7월 3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강원도청)

는 개인 종목 중 주종목인 자유형 100m, 200m에 출전한다.

황선우는 자유형 100m 한국기록과 아시아기록(47초56)을 보유하고 있다. 자유형 200m는 황선우가 한국기록과 세계주니어기록(1분44초62)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지난해 12월 2021 FINA 쇼트코스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황선우는 이번에는 롱코스(50m)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쟁조준한다.

황선우의 단체전 출전 여부는 당일 컨디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스카이데일리/뉴스1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 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